

---

## [논평]인수위 국가인권위원회 개편에 대한 울산인권운동연대 논평

---

2008년 1월 17일 오후 5:16

###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681-230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80-37 3층 전화. 052-242-1119 전송. 052-242-1120 [hulsan@hanmail.net](mailto:hulsan@hanmail.net)

수 신 : 언론사

발신일 : 2008. 1. 17

제 목 : 인수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개편방침에 대한 논평

### [논평]

##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라”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내용을 접하면서 분노를 넘어 서글픔이 앞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높아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재하겠다는 인수위의 주장이 가당키나 한 소린가.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정책으로 인한 역사적 교훈 속에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에 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대변되는 권력의 역사 속에 인권침해의 과정은 끊임없이 재현되었으며 이를 통제하고자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른바 ‘파리원칙’으로 약속한바 있다.

우리사회 역시 이러한 국제적 합의 속에 수년 동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의 편재 속에 배치하고자 했던 수많은 기도는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바로잡혔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의 진전을 되돌려 놓으려는 작태로서 우리사회 인권을 그들의 알량하고 한심한 기준으로 통제해 보겠다는 발상이다.

만약 이번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내외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래도 만약 국가인권위원회를 권력의 손아귀에 잡아넣고 싶다면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2008월 1월 17일

# 울산인권운동연대